

# 작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올해 0.6명대 초읽기

### 통계청, 2023년도 출생·사망 통계 발표 작년 출생아수 7.7% 줄어든 23만명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 유일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3만명 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로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4.5명)이 채 되지 않았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2015년 이후 8년 연속 출생아 수가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2015년(0.7%)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다. 2013년 43만 6000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해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5년 만에 0.3명 가까이 더 줄어든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고, 서울(0.55명)·부산(0.66명) 순으로 낮았다.

충북(1.7%)과 전남(0.3%)을 제외한 1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년 대비 광주(-16.4%)·세종(-13.2%)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은 2022년 1.12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두 자리수 감소를 보이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스페인(1.19명)과의 격차도 상당하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다. OECD 평균인 29.7세보다 4살 가까이 출산이 늦다.

갈수록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0.1~0.2세 높아졌다. 1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6700명(-4.6%) 감소했다. 둘째아는 7만4400명, 셋째아 이상은 1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줄었다.

첫째아의 비중은 60.1%로 전년보다 1.9%

포인트(p) 증가했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엄마 연령별 출생아 수는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4900명 줄었고, 30대 초반(30~34세)은 8199명, 30대 후반(35~39세)은 5300명 줄었다.

통계적으로 35세 이상은 고령 산모로 집계한다. 이를 기준으로 고령 산모 비중이 36.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이 비중이 18.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향후 출산율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보면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추계)를 보면 2072년 출생아 수는 9만명대까지 내려간다.

합계출산율은 가장 중립적인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72명에서 올해 0.68명, 내년 0.65명까지 내려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0.6명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선마저 붕괴됐다.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이다.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1년 전보다 3905명(6.9%) 줄었다. 지난해 12월 출생아는 1만6253명으로 1년 전보다 643명(3.8%) 감소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장래인구추계 쪽에서는 올해가 중위 쪽으로 해서 0.68명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전후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산이 좀 더 지연되거나 코로나 때 혼인 건수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해서 반영된다면 출산율이 현재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오늘 견본주택 오픈

### 단지 앞 18만여㎡ 대규모 공원 '숲세권 단지'



제일건설(주)은 (주)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산22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곡동 183-1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

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3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에 받는다. 3월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같은 달 25일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봉산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첨단지구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서 주거기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 아파트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공원과 함께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일부 세대에서는 봉산공원의 녹지도 조망할 수 있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봉산공원의 자연환경과 첨단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단지로 분양가 역시 안정적인 수준에 책정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공간은 넓히고, 스카이라운지 등 특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설계에서도 완성도를 높인 것도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 현대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사전예약 시작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과 연식변경 모델인 2024 스타리아의 사전예약을 28일부터 시작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모델로 1.6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 아울러 2024 스타리아는 트림별 편의 및 안전 사양을 한층 강화해 상품성을 더 향상시켰다.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해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고객 선호 사양도 기본으로 적용했다.

스타리아 1.6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13km/ℓ의 연비를 비롯해 시스템 최고 출력 245마력(엔진 최고 출력 180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37.4kgf·m(엔진 최대 토크 27.0kgf·m) 성능을 갖췄다.

이 모델에는 '정체구간 특화 제어' 기능도 기본으로 장착됐다.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와 차량 주행 상태를 종합해 저속 정체구간에서 변속 패턴과 엔진 시동 시점을 전략적으로 변경해 가속과 감속에 따른 운전 피로를 줄여주고 승차감을 개선한다.

이외에 현대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하이패스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모드, 오토 디포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모두 포함된 풀옵션 에어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 등 고급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2024 스타리아는 연식변경 모델로 ▲CE타입 USB 충전기 ▲현대차 로고 모양의 4세대 스마트키 ▲2D 알루미늄 소재의 엠블럼 등을 적용해 기본적인 상품성을 개선했다.

전방 주차 거리 경고와 하이패스를 모던 트림부터 기본화해 편의성을 높였고, 파워슬라이딩 도어 닫힘의 작동 속도를 줄이고 경고음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2024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라운지는 휠캡러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일원화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빗물을 감지해 와이퍼 속도와 작동 시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레인센서를 새롭게 추가하고 선바이저 램프를 LED로 변경했으며 7인승에 2열 워크인 스위치 등을 적용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스타리아 판매 가격은 카고 1.6터보 하이브리드 3433만원, 2.2디젤 2847만원, 3.5LPI 3인승 2998만원부터 시작한다.

투어러는 1.6터보 하이브리드 3653만원, 2.2디젤 3238만원, 3.5LPI 3208만원부터다.

라운지는 1.6터보 하이브리드 4614만원, 2.2디젤 4284만원, 3.5LPI 4254만원부터 시작한다.

서선욱 기자

## 1월 인구이동 18% ↑ ...주택 거래 증가로 17년 만에 최대

지난달 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이 동자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9만7000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21년(63만3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0%(9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7년 27.9%(19만명) 증가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아울러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11월, 12월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p) 증가했다. 이 역시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적인 추세인 주택 경기 지표를 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주택 거래량은 8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2만5000건) 증가했으며 입주 예정 아파트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 8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5.3% 늘었다"고 설명했다.

### 통계청,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 발표 3년 만에 최대 이동...4개월 연속 증가

구분	전세	전세	전세	전세	전세
면적	84.96㎡	48.21㎡	59.99㎡	59.99㎡	84.96㎡
가격	5억	5억3000	5억8000	5억9000	5억
면적	114.72㎡	84.90㎡	59.99㎡	34.95㎡	114.95㎡
가격	9억4000	11억	12억9000	18억	18억

다만 이동자 증가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이동자 수가 1987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인구이동률이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3.0%, 시도 간 이동자는 37.0%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 내 이동자는 21.3% 증가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12.7% 늘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4954명), 인천(3373명), 충남(1258명) 등 4개 시도는 순유입, 경북(-1412명), 경남(-1173명), 부산(-1063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1.3%), 세종(0.9%), 충남(0.7%) 등은 순유입, 제주(-1.3%), 경북(-0.7%), 충북(-0.6%) 등은 순유출됐다.

뉴스

## SK매직, 폭 16cm 초소형 직수 정수기 출시

SK매직이 초소형 정수기를 선보인다. SK매직은 성능, 위생, 편의 기능을 강화하고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인 초소형 직수 정수기(모델명 WPU-JAC104S)를 내놓고, 오는 4월30일까지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초소형 직수 정수기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에서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와 함께 CES혁신상을 수상 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으로 작아진 크기다. 폭 164mm, 깊이 370mm, 높이 345mm로 기존 자사 직수 정수기 대비 약 60%로 크기를 줄여 혁신적인 주방공간을 제공한다. 내추럴 화이트, 파스텔 핑크, 파스텔 블루, 메탈릭 그레이 등 4가지 색상으로 구성해 나만의 주방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물이 흐르는 모든 유로는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오염, 부식, 세균에 강한 '올(ALL)-스테인리스'로 제작돼 약 100℃의 고온수도 환경 호르몬 등 각종 유해물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냉각 시스템 내부까지 스테인리스를 적용해 위생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 비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오유나 기자